

JB금융지주 '조직 슬림화' 단행

본연의 핵심 기능 강조... 전체 인원 30% 감축

해외사업지원부 신설 · 글로벌 사업 강화 예정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은 '지주사 조직 슬림화, 지주 본연의 핵심 기능 강화'를 지주사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JB금융 지주사는 4월 12일 핵심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를 개편하여 기존 4본부 15개부를 4본부 10개부로 축소했다. 전체 임직원수는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 전출 인원 등 총 40명이 감소, 18명의 신규로 99명에서 68명으로 약 30%정도 대폭 감원됐다.

JB금융지주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사와 지회사간 중복부무를 줄이는 한편, 자회사의 자율경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직 안정화와 내실 강화를 한다는 전략이다.

지주 조직의 슬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지회사에 재배치, 그룹 전체적으로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JB금융지주는 조직의 실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핵심업무 위주로 조직 '슬림화'를 단행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해외사업지원부를 신설, 그룹의 글로벌 사업전략 부문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선보인 오픈뱅킹 플랫폼 '오뱅크(Obank)' 추진과 보다 구체적인 디지털 전략을 재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은 "지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차원"이라며, "비록 조직은 축소되더라도 지주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자회사 CEO들과의 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하여 자회사들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으로 시너지를 최대화 하는 방식으로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카페탈, JB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PFCBank), JB Capital Myanmar를 손회사로 둔 종합 금융그룹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특별공급 신청 22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아울러,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우선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환경개선팀 김진호 주무관(063-210-643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새만금을 힘차게 달리는 마라톤 건각들을 한전 군산지사, 군산전력지사, 신일종합시스템이 합동으로 응원했다.

"뜨거운 염원이 하나로 뭉쳐 위기 극복하는 원동력 되기를"

한전 군산지사 · 군산전력지사 · 신일종합시스템 합동,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열기 고조시켜

새만금을 힘차게 달리는 마라톤 건각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힘차게 응원한 한국전력 군산지사(지사장 이철호)와 군산전력지사(지사장 윤근화), 신일종합시스템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국가 중추적 기업으로 군산지역 전력공급의 주역인 한전 군산지사와 군산전력지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지역 사회 현안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특히 본 마라톤 대회 봉사활동을 2014년부터 시작하여 6년 연속 참여 중이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적극 참여한 이날 60여명의 봉사단원들은 5km, 10km 반환점에서 아침 일찍부터 부스 설치 및 응원 준비를 완료하고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선수들에게 열렬한 응원과 1만여 명에게 생수를 제공, 대회 열기를 고조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이철호 한전 군산지사장은 "현대 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그 노력이 꽃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했으며, 뜨거운 염원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 군산지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 실천은 물론 고용 위기 지역 전기 분야 기술자 양성, 에너지 취약 세대 겨울나기 집수리 및 쌀 나누기,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지역 문화 공연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김영태 기자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가족 봉사 함께 해요"

하림, 소비자 대상 봉사단 모집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할 소비자 가족 봉사단을 모집한다.

하림은 5월 6일까지 '피오봉사단 6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피오봉사단'은 하림 임직원과 소비자 가족들로 이뤄진 봉사단으로, 2014년에 처음 조직돼 올해로 6기를 맞는다. 공식 슬로건인 '내가 마시는 물, 내가 마시는 공기, 내가 사는 지구, 하림 피오봉사단이 만들어갑니다'를 앞세워 환경정화와 동물사랑을 실천하는 피오봉사단은 해마다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스마트 팩토리 완공을 앞두고 있는 하림은 피오봉사단과 함께 더욱 다채롭고 매력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동물 복지와 환경보호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5월에 전북 익산에 완공 예정인 하림 스마트 팩토리에서 피오봉사단 6기 발대식을 갖고 최신 동물복지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를 견학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최근 환경 보호 트렌드에 맞게 업사이클링 플랜테리아,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등 매일 달라지는 미션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가을엔 하림 임직원과 소비자 가족 봉사단이 만나 환경 교육을 받

고 환경 보호 활동을 함께 하는 1박2일 환경 캠프도 예정되어 있다. 피오봉사단 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있다. 오프라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별도의 봉사활동 인증서를 부여하고, 온라인 활동 우수 참여자에게는 하림 선물세트를 추가로 증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할 피오봉사단 6기는 소비자 10가족이며, 피오봉사단으로 선발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봉사활동의 아름다운 가치를 실천하는 특별한 추억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림 피오봉사단 신청 방법은 네이버 폼(<http://naver.me/5LaCoxff>)을 통해 가능하며, 지난 하림 피오봉사단 후기나 올해 진행되는 활동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하림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rimark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농협, '착한론' 2개월 만에 200억 조기 소진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2월 18일 전라북도와의 협약, 10억원을 출연하여 출시한 '착한론'이 1%대의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혜택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출시 2달 만에 200억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소진으로 '착한론'을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최저일금보장 경영애로기업 및 위기 지역 지원 특별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위기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각각 최대 1억원, 7천 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김장근 본부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최고의 금융서비스로 전북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문화체험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지난 13일 원주군 일대에서 '제34회 JB멘토링 문화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으며, 전북은행 직원 및 봉사단과 아동 40여명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 한자공예

와 딸기수확 및 딸기청 만들기 체험을 함께 했다.

한편,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매해 임직원의 급여 1%를 기부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JB멘토링 문화체험,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 한가득 주먹밥'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기야 합니다